

제3장 수 산 업

제1절 포항수산업의 성립배경

경북 동해안 해역에 속해있는 포항은 주로 수산업으로 생계를 유지할 만큼 중요한 자원이다. 왜냐하면 수산업이 발달할 수 있는 환경조건인 지방하천이 흘러 암초, 계곡, 사암 등이 있어 어자원(漁資源)형성이 자연적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영일만일대는 수산자원(水産資源)이 형성되는 난류인 대마도 해류(對馬島 海流)가 대한해협을 관류하여 북상 북쪽의 함경도, 강원도 연안을 흘러 내려온 ‘리만’한류가 부딪쳐 한난양류의 각종 어족 서식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간만의 차가 심하지 않아 천연적(天然的)인 조건을 갖추고 있다.

어업이 급속히 발전하게 된 것은 어선의 동력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일본인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어업에는 심한 타격을 주었다. 당시 우리나라의 수산업(水産業)은 여타 산업에 비교가 안될 만큼 뒤떨어져 있었다.

그 후 초기 군정 시에 군정청은 수산계의 혼란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반포고 제4호에 의거 조선수산업회를 수산행정의 대리기관으로 하여 어획물 관리는 물론 명령의 위반자는 어선을 몰수한다는 지침을 하달하여 질서를 잡기 시작하였다.

조선수산협회(朝鮮水産協會)는 간담회를 열어 각도의 수산과장회의를 거쳐 신어업제도를 발표하여 어민들을 행정적으로 관리하였다. 이 제도는 1949년 4월 28일에 공포된 어업에 관한 임시조치법이며 수산법이 제정 시행될 때까지 우리나라 수산행정의 근간이 되기도 하였다.

1948년 정부가 수립된 후 종래의 수산업이 원시 제1차 산업이라 하여 농림부에서 관장하여 왔다. 그러나 타 산업에 비해 수산물의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수산업에 관한 인식을 달리하게 되었다. 그 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법률 제1호가 제정·공포되어 상공부에 수산국을 두게 되었으며 수산업 발전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6.25전쟁으로 인하여 어장에서의 조업의 중단, 어선 및 어업용 시설의 파손 등 수산업은 큰 타격을 받게 되었다.

어장의 감축뿐만 아니라 어선은 1949년에 46,230쌍이었는데 4,123쌍이 파손되었으며, 인적자원에 있어서도 40,000여 명이 감소되는 등 피해가 극심하였다.

6.25전쟁이 끝난 후 정부는 수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무청을 설치하였다. 이것을 계기로 포항지역에도 수산업이 행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 그 후 상공부의 수산국, 교통부의 해운국, 내무부의 항만시설, 사무 및 해안경비를 병합하여 해무행정의 일원화를 꾀한 것으로 다기화 된 행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되었다.

1955년의 수산업계는 현저한 발전을 보게 되었는데, 어선, 어구도입 및 국내시설의 건조가 촉진되었고, 자원보호에 있어서도 연안어업에서 오는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원양 어로구를 개척하여 해외진출을 꾀했다.

당국은 근해어장을 보호하는 동시에 어업허가건수의 견제,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 및 어자원의 남획 단속을 하였다. 그리고 평화선의 수호, 생산물의 대외판로개척, 한천공장, 제빙공장의 수리 및 신설 등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여 수산정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어업생산량도 뚜렷이 회복되었으며 1957년부터는 원양어업을 적극 장려하여 인도양에 처녀출항, 원양어업의 제일보를 디디게 되었다. 포항지역에도 이러한 영향을 받게 되어 수산업이 지역에 차지 비중이 커져 갔다.

그 후 5.16군사정변으로 수산업계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정부는 수산업의 보다 효율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해무청을 폐지시키고 수산청을 발족하였다. 더구나 제1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이 수립되면서 괄목할 정도로 수산업이 부상되었다.

수산청이 발족되면서 국내적으로는 연근해어업을 재조정하여 한국수산업의 근대화를 촉진시키는 한편 생산성의 향상으로 130만 어민의 복리증진과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기업성 어업을 대폭 육성하는 적극적 행정력을 발휘했다. 따라서 이 지역에도 행정력이 미쳐 어선의 현대화로 어업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제2절 포항수산업의 인프라조성

포항은 수산업의 원동력이 되는 어업조합 수가 경상북도의 지정 어업조합 10개 중 영일군 장기면, 창주면, 포항읍, 청하면, 송라면조합 등 5개로 절반을 차지하였는데 이것은 포항지방의 어업세를 대변해 주고 있다.

포항은 1923년에는 포항면에 포항수산시험장을 개설했으며, 어종보호와 개발을 했다. 그 후 1949년에는 중앙 수산시장 포항출장소를 개설하여 어종보호 및 어종실험을 통해 어민들에게 정보제공을 하였다. 1993년에는 부산세관 포항출장소가 개설되어 이 지방의 수산자원에 대한 보호와 증가일로에 있는 수산제품의 수출업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져 경상북도의 수산상품센터 역할을 하였다.

우리나라의 어항(漁港)은 대체로 피난항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지방적으로는 상항(商港)의 성격을 띠고 있다. 포항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항이 방치되어 왔으나 한·일 합방 후 자국어민(自國漁民)의 보호육성을 위해 국고보조로 어선의 정박을 위해 방파제 공사를 하기 시작했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수산업자들의 활발한 활동전개와 자위단체가 계속해서 결성, 어업환경을 개선하는 당국의 노력, 어민들의 적극적인 어업활동으로 이 지역의 수산업이 서서히 정착하게 되었다.

제3절 포항의 근대 대표 어업

포항지역에는 각종 어류, 패류, 해조류, 연체동물이 회유하고 있다. 그중 많이 회유하고 있는 어종은 청어, 고등어, 정어리, 갈치, 가자미, 돔, 삼치, 넙치, 전복, 미역, 상어 오징어, 꼬치 등이 있다. 특히 고래는 영일만 일대를 중심으로 서식하며 우리나라 최대의 고래어장으로 명성을 날리기도 하였다.

1. 고등어 어업

고등어는 우리나라 전 연안에서 서식하고 있는 어종으로 비교적 풍부한 어자원(魚資源)중의 하나이다. 고등어 어업은 경상남·북도 연해가 주 어장이었으나 동서양 해안으로 이동 발달하기 시작했다. 고등어가 처음 서식한 곳은 주로 영일만, 울산만을 중심으로 한 일원이다. 특히 구룡포, 송라 등지에서 어장이 많이 형성되어 이 지방에서 빼놓을 수 없는 어자원으로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어업이다.

정어리 기선건착선 어업 및 기선저인망어업과 함께 자본집약적인 대규모어업에 속했던 고등어 기선건착어업은 자본력이 풍부한 일본인에 의한 독점적 어업이었다.

따라서 고등어 어업에 있어서 한국인은 주로 영세한 연구어업이었으며, 무동력의 범선연승어업(帆船延繩漁業)에 종사하였다.

해방 후 고등어 어업은 계속해서 어군의 형성이 잘 이루어져 이지방의 중요한 어자원으로 자리매김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 이르러 감소하기 시작했다. 고등어 어장은 어획량에 있어서 매년 감소하였으나, 이 지역에 빼놓을 수 없는 주요한 어자원이다. 1959년에는 90t, 1960년 72t, 1962년 44.2t의 어획고를 올려 꿈치에 이어 제2위의 어획고를 기록하여 이 지역은 고등어 어장의 보고로 인정받게 되었다. 고등어 어장은 기록이 심하여 1977년의 고등어 어획고가 23M/T로 급격한 감소의 추세를 나타내어 안정성 있는 어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 이 지방에서 형성되는 어종 중 빼놓을 수 없는 어종이며, 이 지방의 유일한 어종이라 할 수 있다.

2. 정어리 어업

정어리 어업의 유래는 1923년 10월 24일 함경북도 성진해안 일대에 정어리 어군이 몰려들어 죽은 고기와 반죽은 고기가 해안에 몰려오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당시 청진항 부근에서 침물선을 인양하였던 잠수부의 말에 의하면 부근 바다에서 정어리 빈사체가 가슴이 문힐 정도로 침적(沈積)되어 있었다고 전해, 정어리 떼가 얼마나 많았는가를 짐작케 한다. 정어리 어업은 이 지역은 물론 우리나라의 대표적 어업이 되었음은 물론 단일어장에 단일어종의 어획고로서는 세계적인 기록이라 할 수 있다.

해방 후에도 정어리어업은 이 지역 중요한 어자원으로써 어민들의 좋은 수입원이 되었다. 정확한 자료는 없으나 고기어획량이 많아서 정어리기를 생산 공장이 포항을 비롯한 인근 지역에 산재해 있었다.

이후 정어리 어업은 쇠퇴하기 시작하여 1950년대에 와서는 어획량이 격감하게 되었다. 특히 주목할 것은 1960년에는 통계상 어획량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1966년에 이르러 180kg의 소량이 잡히기는 했으나 과거와 같이 대량으로 잡히는 경우는 없었다. 또한 정어리기를 생산하던 생산공장은 조업을 중단했으며 1950년대 후반까지 양포, 오포리, 대동배, 구룡포에 공장이 있었으나 어획량의 감소, 수요자의 감소로 공장이 폐쇄되어 현재는 그 자취조차도 찾아 볼 수 없다.

정어리 어장은 1970년에 들어서면서 이 지방에서는 거의 형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해안 전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어종으로 전락되었다. 그러다가 1997년에 973톤의 어획량을 올려 정어리 어장의 면모를 새롭게 하는 듯하였으나 그 후 정어리는 간혹 몇 마리씩 잡히기는 하였으나 어장형성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3. 포경업

포항지역은 울산 방어진과 더불어 포획 고래두수가 많아 고래어장이 성업을 이루었다. 특기할만한 것은 구룡포 근해에 고래어장이 형성되어 강두수의 해승호가 1951년 12월 20일 허가를 득하여 포경업을 시작한 사실이다. 그 후 주길호, 제9영어호 등을 투입하여 구룡포항을 고래잡이 어항으로 변모시켰다. 포경허가번호 1호, 2호, 3호는 구룡포에 소재하였는데 우리나라 근대포경의 원조라 할 만큼 이지역의 포경업이 발달했다.

한편, 1960년 8월 한국포경어업수산조합 결성을 위하여 필요한 구비서류와 함께 해무청장에 제출하였으나 반려되기도 하였으나, 1962년 1월 20일에 이르러 포경어업협동조합을 결성하게 되었다. 또 1978년 12월에 한국은 국제포경위원회(IWC)에 가입하였다.

1964년 2월 5일 농림부 고시 제854호인 「수자원보호령 및 제 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획물 양축항지정」에 따라 구룡포 항을 비롯한 5개항이 대형포경어업 및 연안포경어업의 어획물 양육항으로 지정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 지방의 구룡포항은 정부시책에 따른 고래잡이 항으로 육성, 발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포경어업은 1965년부터 포획두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1977~1978년에는 최고의 어획고를 올렸다. 그 후 1980년을 고비로 포획포경수가 격감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원인은 남획으로 인한 고래자원의 고갈이라 할 수 있다.

구룡포 근해의 고래잡이는 울산 방어진과 더불어 우리나라 2대 어장 중 하나로 각광을 받았으나, 1970년을 고비로 서서히 울산 방어진으로 주도권을 빼앗기기 시작하여 쇠퇴 일로에 놓이게 되었다. 그 후 1980년에 이르러 고래어획고가 줄어졌을 뿐 아니라 1척의 포경선만으로 포경어업을 하게 되어 이 지방의 포경어업의 종말이 예고되었다.

1985년 3월 2일 농수산부령 제927호 「어업 허가에 관한 규칙」제15조와 관련하여 근해 포경어업은 포경어업에 관한 국제협약 및 결정사항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이 지방의 고래잡이는 물론 우리나라의 포경업은 서서히 없어지게 되었다.

1985년 6월, 영국에서 개최된 제35차 국제포경위원회에서는 1980~1984년까지의 블랙퀀타 3,634두를 1985년까지 포획하고 1986년부터는 사업포경을 전면 금지키로 결정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결정을 받아들여서 21척의 포경선을 어초 투입용 및 어업 지도선으로 용도를 변경시켰다. 그 후 구룡포 근해의 포경업은 종사자의 전업으로 인하여 포경어업이 쇠퇴하였으며, 오늘날 와서 고래잡이는 그 자취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1990년에 들어와서도 상업포경 전면 금지가 연기되면서 포경업은 우리나라 전역에 금지되고 있다. 고래의 먹이로는 멸치 오징어 정어리 등 청정해역에서 자라는 고기이다. 고래가 많을수록 그 바다는 건강한 바다이다. 구룡포를 중심으로

최근에 와서 고래 출몰이 잦아지고, 이 원인으로 근해 어종이 고갈되어 어민들의 불만 목소리가 커지고 포경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고래의 출몰이 빈번하게 일어나자 일각에서는 고래를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고래 관광산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연중 돌고래가 서식하는 제주도, 성산도, 포항의 다무포 일대가 관경(觀鯨) 지역으로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 관경은 오래전부터 미국 캐나다, 일본 등지에서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으며 최근 대만에서는 화련해안 밀란해역을 고래 관광지역으로 정하여 관광객 유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포항 근해는 고래의 회유지로 개체수가 가장 많은 곳이기 때문에 관경지역으로 지정해 관광객 유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역의 어민들의 요구인 어족 보호를 위한 고래잡이 허용이 주목이 된다. 현재 구룡포 지역에는 고래고기를 판매하고 있는 점포들이 몇 군데 있을 뿐 고래잡이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다.

포경어업 생산추이

(단위 : M/T, 1000원)

구분 연도	계			대 형 경					소 형 경				
	두수	중량	금액	두수	중량	평균중량	금액	톤당단가	두수	중량	평균중량	금액	톤당단가
1965	266	860	24,180	17	317	18,647	10,100	81.9	249	543	2,181	14,080	25.9
1966	323	1,128	42,302	14	215	15,357	12,804	59.6	309	913	2,955	29,498	32.3
1967	356	1,140	52,084	20	376	18,800	27,637	73.5	336	764	2,274	24,447	32.0
1968	344	1,044	76,574	28	472	16,857	42,750	90.6	316	572	1,810	33,824	59.1
1969	421	1,322	54,692	35	542	15,486	28,608	52.8	386	780	2,021	26,084	33.4
1970	740	1,866	97,034	606	1,622	2,677	87,360	53.9	134	244	1,821	9,674	39.6
1971	755	2,155	126,217	697	2,017	2,894	121,181	60.1	58	138	2,379	5,036	36.5
1972	769	1,622	108,015	753	1,585	2,105	104,743	66.1	16	37	2,313	3,272	88.4
1973	886	2,191	99,544	866	2,144	2,476	97,176	45.3	20	47	2,350	2,368	50.4
1974	618	2,813	241,777	618	2,813	4,552	241,777	89.9	-	-	-	-	-
1975	574	1,608	298,070	574	1,608	2,801	298,070	185.4	-	-	-	-	-
1976	537	1,885	719,967	43	657	15,279	323,670	492.6	494	1,228	2,486	396,297	322.7
1977	1,059	2,254	1,331,268	26	420	16,154	279,535	665.6	1,033	1,834	1,736	1,051,733	573.5
1978	1,056	2,740	2,497,232	34	680	20,000	592,830	871.8	1,022	2,060	2,016	1,904,402	924.5
1979	924	2,077	2,444,217	18	243	13,500	41,341	2,639.3	906	1,834	2,024	1,802,876	983.0
1980	928	2,023	2,344,192	3	35	11,667	35,370	1,010.6	925	1,902	2,056	2,235,562	1,175.4
1981	763	1,687	2,502,047	1	7	7,000	7,500	1,071.4	762	1,680	2,205	2,494,547	1,484.8
1892	901	2,139	3,130,252	-	-	-	-	-	901	2,139	2,374	3,130,252	1,463.4
1983	488	1,519	2,738,726	-	-	-	-	-	488	1,519	3,113	2,738,726	1,803.0
1984	393	1,502	3,477,194	-	-	-	-	-	393	1,502	3,822	3,477,194	2,315.0
1985		426	2,017,023	-	-	-	-	-	-	426	-	2,017,023	4,734.8

제4절 포항 수산업의 성쇠

1. 포항수산업의 발전 과정

우리나라의 어업은 과거 기선저인망 어업, 기선건착망 어업, 정치망, 잠수기 어업 등이 일본의 수중에 들어갔으며 포경어업에 한 하여는 한국에 기지를 두지 않고 일본에 기지를 두고 한국에 출어만 하였으므로 어업의 형태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황폐화되었다. 따라서 포항지역에도 예외일 수 없었다.

어업의 신장추세

(단위 : 기구, 명, MT)

연도	구분		어선		어업별 생산량(M/T)				
	가구수	가구원수	쌍수	총 톤수	계	연근해	양식	내수면	원양
1945	138,766	328,774	42,399	152,399	230,583	228,197	2,386	-	-
1946	157,907	408,369	37,660	134,463	304,741	298,723	6,018	-	-
1947	183,625	502,231	37,750	135,260	306,247	301,952	4,295	-	-
1948	170,557	521,252	46,930	206,903	293,759	285,148	8,611	-	-
1949	196,435	616,366	43,825	-	308,410	300,148	8,261	-	-
1950	206,853	625,292	40,629	-	219,450	216,191	3,259	-	-
1951	198,895	584,890	43,203	-	266,849	264,655	2,194	-	-
1952	180,140	587,667	41,244	-	281,849	277,618	4,231	-	-
1953	195,723	600,017	40,711	-	266,995	258,036	4,959	-	-
1954	208,293	696,595	42,728	117,262	254,642	249,536	5,106	-	-
1955	209,585	678,779	39,520	125,581	265,895	259,234	6,661	-	-
1956	206,548	728,155	39,634	117,092	346,561	340,916	5,645	-	-
1957	231,638	779,630	37,752	105,346	409,309	403,150	6,152	-	-
1958	222,387	806,938	38,132	110,405	403,304	394,932	8,115	-	257
1959	201,298	789,342	28,891	89,420	392,060	381,987	9,535	-	538
1960	189,165	808,896	34,438	107,017	357,181	341,556	14,711	-	914
1961	191,929	816,816	42,300	144,869	447,634	435,200	12,067	-	367
1962	194,565	1,093,663	43,504	161,709	470,187	449,200	18,709	926	657
1963	202,096	1,224,499	47,217	160,042	532,153	443,348	85,285	962	2,558
1964	202,901	1,210,991	48,716	167,423	599,824	522,260	72,885	2,074	2,605
1965	215,114	1,276,808	51,052	203,164	636,512	553,930	73,675	344	8,563
1966	236,505	1,441,734	53,294	245,962	702,295	584,021	91,060	362	26,852
1967	241,500	1,477,012	57,255	262,079	750,349	611,847	97,131	887	40,484
1968	219,631	1,346,369	62,002	292,962	852,291	688,078	113,031	1,108	50,074
1969	223,011	1,325,395	66,115	342,280	862,783	692,670	86,316	1,015	82,782
1970	194,601	1,165,232	68,355	358,366	935,461	726,231	119,211	398	89,621

당시 포항지역 주요한 어항으로는 포항항, 구룡포항, 대보항, 월포항, 칠포항 등이며 어선의 정박과 어획물의 양육(揚陸)시설의 복원과 더불어 어업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포항지역에 회유하고 있는 주요어종은 청어, 갈치, 가자미, 돔, 삼치, 넙치, 전복, 새우, 미역, 우뚝가사리, 상어, 오징어 등이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어선 및 각종장비의 부족으로 인하여 1946년 경북의 어획고는 40,321톤으로 전국의 13.2%에 머물게 되었으며, 다음해인 1947년에 혼란이 가라앉으면서 어획고가 다소 회복을 보여 연중 총 어획고가 57,527톤으로 증가하여 전국대비 점유비율도 19%로 높아졌다. 따라서 영일만의 어획양도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47년 가을부터 근8개월에 걸친 한류의 내습으로 영일만일대의 각종 어종이 멀리 이동되었으며, 1949년에는 도내 각 어장에 4~5차례 불의의 폭풍이 내습, 바다의 어망이 대부분 유실되어 어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혀 수산발전의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어업 가구 수

(단위 : 가구)

연도 지역	구분 총계	경영자 가구					어업고용가구				
		계	전업	겸업			계	전업	겸업		
				소계	1종	2종			소계	1종	2종
1967 포항시	120	-	-	-	-	-	-	-	-	-	-
영일군	-	-	-	-	-	-	-	-	-	-	-
1970 포항시	35	-	-	-	-	-	-	-	-	-	-
영일군	-	-	-	-	-	-	-	-	-	-	-
1975 포항시	652	-	-	-	-	-	-	-	-	-	-
영일군	5,683	4,461	2,209	2,252	1,324	928	1,222	743	479	267	212
1978 포항시	2,305	436	302	134	134	-	1,869	899	970	970	-
영일군	4,986	4,178	2,005	2,093	-	-	808	493	315	-	-
1981 포항시	2,130	427	293	13	134	-	1,703	882	821	821	-
영일군	4,533	3,564	1,325	2,239	1,187	1,052	969	195	775	484	291
1984 포항시	415	310	150	160	85	75	105	70	35	20	15
영일군	4,712	2,446	876	1,570	1,314	256	2,266	1,502	764	478	286
1987 포항시	424	300	160	140	140	-	124	124	-	-	-
영일군	4,685	2,585	887	1,698	-	-	2100	1,327	733	-	-
1990 포항시	423	263	212	51	48	3	160	135	25	18	7
영일군	3,649	2,870	1,302	1,568	-	-	779	234	545	-	-
1993 포항시	512	409	223	186	186	-	103	103	-	-	-
영일군	4,061	2,400	1,186	1,214	1,214	-	1,661	694	967	967	-
1995 포항시	-	4,272	2,288	1,984	1,984	-	-	-	-	-	-
1996 포항시	-	2,799	854	1,945	1,641	304	-	-	-	-	-
1997 포항시	-	2,799	854	1,945	1,641	304	-	-	-	-	-
2000 포항시	-	2,715	1,444	1,271	1,040	231	-	-	-	-	-
2002 포항시	-	2,684	1,413	1,271	1,040	231	-	-	-	-	-
2005 포항시	-	2,434	1,175	1,299	929	370	-	-	-	-	-
2007 포항시	-	2,474	1,176	1,299	929	370	-	-	-	-	-

그러나 우리나라의 수산업은 해마다 발전하여 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1950년을 기점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가구수 및 가구원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6.25 전쟁으로 다소 줄긴 줄었으나 전쟁이 끝난 후 가구수가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또 생산량에 있어서도 1952년 47,909톤에서 1953년에는 29,199톤으로 감소하여 전년대비 39%나 감소하기도 하였다. 이후 1970년을 기점으로 어업종사 가구수는 격감하기 시작했다.

어가인구 추이

(단위 : 가구, 명)

연도 지역	구분	총계	어가 인구			어업 종사자		
			계	남	여	계	남	여
1967	포항시	435	-	-	-	-	-	-
	영일군	-	-	-	-	-	-	-
1970	포항시	185	-	-	-	-	-	-
	영일군	-	-	-	-	-	-	-
1975	포항시	-	-	-	-	-	-	-
	영일군	31,387	24,603	12,182	12,241	6,784	3,345	3,439
1978	포항시	13,646	2,581	1,258	1,323	11,065	5,530	5,535
	영일군	25,617	21,435	10,997	10,438	4,182	2,018	2,164
1981	포항시	11,630	2,248	1,121	1,127	9,382	4,687	4,695
	영일군	22,629	17,733	8,748	8,985	4,896	2,417	2,479
1984	포항시	1,896	1,221	625	596	655	325	330
	영일군	23,740	12,606	6,203	6,403	11,134	5,576	5,558
1987	포항시	1,761	1,237	802	435	524	296	228
	영일군	23,627	12,397	6,142	6,255	11,230	5,629	5,601
1990	포항시	1,777	1,140	572	568	637	334	369
	영일군	14,427	11,471	5,885	5,586	2,956	1,525	1,431
1993	포항시	2,192	1,187	1,005	-	-	-	-
	영일군	15,684	8,226	4,124	4,102	7,458	3,696	3,762
1995	포항시	-	15,478	8,156	7,322	-	-	-
1996	포항시	13,686	9,784	4,882	4,902	3,902	2,640	1,262
1997	포항시	13,686	9,784	4,882	4,902	3,902	2,640	1,262
2000	포항시	12,445	8,412	4,308	4,529	4,033	2,823	1,210
2002	포항시	12,355	8,412	4,298	4,114	3,943	2,477	1,466
2005	포항시	10,259	6,969	3,502	3,467	3,290	2,245	1,045
2007	포항시	10,259	6,969	3,502	3,467	3,290	2,445	1,045

포항은 어가인구가 1978년에 포항시 2,305가구, 영일군 4,986가구 총 7,291가구로 절정을 이루기도 했다. 이 해를 고비로 가구수 및 인구가 점점 하강 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어민들이 일하기 쉽고, 별이가 좋은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청년층이 다른 도시 혹은 포항공단의 유입이 가장 큰 원인이라 분석할 수 있다. 그런데 포항은 이해엔 포항시 경우 경영자 가구수는 436가구로 어업고용 가구수 1,869가구로 4.3배이며 영일군은 경영자 가구수 4,178가구 고용자 가구수 808가구로 0.2배로 대조를 나타내고 있다. 이 때 경영자 가

구도 포항시는 전업이 302가구 겸업이 134가구로 전업이 훨씬 많으며 영일군의 경우는 전업 2,005 가구에 겸업 2,093가구로 오히려 겸업가구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어가인구 추이를 보면 1978년에 포항시 13,646명, 영일군 25,617명 총 39,263명인데 이중 남자는 1,983명 여자 1,946명으로 남녀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나 타 업종에 비해 여성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어업이 계절성이 강하며 전업으로 생계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인은 어업이 기업형보다 가족형 어업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1997년에는 포항시 영일군 통합에 불구하고 어가 인구수는 13,686명으로 인구수가 격감하고 있어 수산업 종사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그 이유는 어자원의 고갈과 어로 비용이 많아 출어에 상당한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어가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인근 어자원 부족은 물론, 유류대의 고가와 인건비 비중이 커져 어민들의 출어는 더욱 어렵게 되어 전업자가 속출하였다. 표에 의하면 2007년 어가인구 6,969명이며 어업종사자는 3,290으로 수산업계 인구 및 종사자가 격감하였으며 종사자의 대부분은 가족어업이나 외국선원으로 구성하여 출어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산물 어획량 및 어획금액 추이

(단위 : M/T, 천원)

연도	구분	합 계		어 류		감 각 류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1978	포항시	12,696	2,968,015	11,551	2,018,440	-	-
	영일군	-	-	-	-	-	-
1980	포항시	6,355	3,228,988	6,009	2,807,103	-	-
	영일군	-	-	-	-	-	-
1982	포항시	20	1,000	20	1,000	-	-
	영일군	60.2	3,010	60.2	3,010	-	-
1984	포항시	8,196	5,545,198	6,495	2,885,420	-	-
	영일군	26,499	24,106,260	12,148	8,175,604	-	-
1986	포항시	9,767	8,598,894	7,840	4,532,287	-	-
	영일군	28,842	29,022,275	15,564	7,437,789	9	5,313
1988	포항시	14,762	10,012,224	11,899	4,245,764	-	-
	영일군	24,967	23,322,698	12,837	4,623,307	459	601,467
1990	포항시	9,161	16,188,378	3,361	2,264,661	-	-
	영일군	2,449	41,465,956	5,986	6,058,104	-	-
1992	포항시	10,911	22,397,508	4,212	7,055,206	-	-
	영일군	23,326	36,745,806	4,743	8,030,933	36	117,286
1995	포항시	27,542	61,251.77	6,881	10,078,038	0.2	386
1996	포항시	29,422	72,709,535	5,025	20,527,127	-	-
1997	포항시	33,315	58,265,909	9,140	15,643,962	1,010	127
2000	포항시	34,235	85,266,000	10,996	26,520,000	2,034	12,926,000
2002	포항시	39,874	81,191,299	8,953	23,871,917	889	5,895,911
2005	포항시	33,971	94,291,652	8,631	29,382,022	840	7,353,112
2007	포항시	43,006	98,118,118	11,436	23,603,260	1,579	11,135,666

2. 수산물 생산현황

포항지역에 생산되는 어종(漁種)은 어류, 패류, 해조류, 연체동물, 기타 수산물로 구분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류는 가자미류, 넙치류, 꽁치, 쥐치, 정어리, 불락, 전어, 고등어, 노가리, 상어류, 대구 등 20여종이 넘는다. 패류는 굴, 전복, 백합, 고막 등이며 해조류는 미역, 우뚝가사리 등이다. 기타 수산물은 오징어, 새우, 낙지 등을 말한다.

포항시의 1960년 어종별 어획고는 총 생산량 7,019,279kg에 금액은 48,315,516환이며 대도어(大刀漁)가 가장 많아 3,723,578kg이며 가자미 898,404kg, 명태 526,791kg 순서로 생산을 올렸다. 영일군의 경우를 보면 1964년 어종별 어획고는 총 23,256,956kg이며 이 중 어류가 11,599,919kg으로 가장 많은 어획고를 올렸으며 다음으로 기타 동식물이 8,943,209kg이다. 포항의 수산물 생산은 1970년대 들어서면서 계속 증가하였으며 1978년을 정점으로 수산물 어획량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가 1986년에는 어획량이 급증하여 38,609M/T에 어획금액 375,621,169천원으로 최고치를 나타내는 등 해마다 기복이 심했다. 특히 1982년 포항지역의 수산물 생산은 엄청나게 줄었다.

수산물 어획량 및 어획금액 추이

(단위 : M/T, 천원)

연도	구분	연체동물		패류		기타수산물		해조류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1978	포항시	1,144	949,575	-	-	-	-	-	-
	영일군	-	-	-	-	-	-	-	-
1980	포항시	346	421,885	-	-	-	-	-	-
	영일군	-	-	-	-	-	-	-	-
1982	포항시	-	-	-	-	-	-	-	-
	영일군	-	-	-	-	-	-	-	-
1984	포항시	1,498	2,535,181	2	20,797	164	117,086	37	16,684
	영일군	-	-	-	-	8,727	15,097,710	5,071	35,970
1986	포항시	1,762	3,991,507	-	-	165	75,100	-	-
	영일군	6,783	15,124,523	-	-	4,265	6,120,275	2,221	334,377
1988	포항시	2,850	5,762,775	-	-	13	3,685	-	-
	영일군	9,940	17,587,495	-	-	-	-	1,731	510,495
1990	포항시	3,869	10,571,350	-	-	1,889	3,341,265	42	11,102
	영일군	15,948	35,104,075	-	-	2,464	260,863	51	42,902
1992	포항시	6,699	15,342,302	-	-	1,815	4,392,482	-	-
	영일군	18,525	28,530,442	-	-	22	67,142	-	-
1995	포항시	20,661	51,172,853	-	-	-	-	-	-
1996	포항시	24,397	52,182,408	-	-	-	-	-	-
1997	포항시	24,173	42,621,820	-	-	-	-	-	-
2000	포항시	21,205	45,820,000	-	-	-	-	-	-
2002	포항시	28,500	47,218,132	-	-	1,592	4,205,339	-	-
2005	포항시	24,500	27,556,518	-	-	-	-	-	-
2007	포항시	27,725	50,554,663	-	-	2,266	12,824,529	-	-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을 보면 허가어업은 근해어업과 연안어업으로 나눌 수 있고, 신고만으로도 어업을 할 수 있는 신고어업도 있다. 1970년대에 와서는 수산업의 발전이 거듭함에 따라 어업허가와 신고어업이 매년 증가했다.

특히, 괄목한 성장을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연안어업으로 1982년에 1,411건에서 1984년 1,668건 1986년에는 2,033건으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후 당국의 통계가 기록되지 않아 알 수 없으나 어업허가 및 신고가 계속 줄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수산업은 1990년대 중반부터 3D 업종에 속해 비교우위적인 경쟁력이 없어 신규로 허가나 신고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어선보유 현황

(단위 : 척, 톤)

연도	구분	총 력				1톤 미만	1~10톤 미만	11~20톤 미만	21~30톤 미만	31~40톤 미만	51~100톤 미만	101톤 이상
		동 력		무동력								
		척수	톤수	척수	톤수							
1980	포항시	177	3,826.56	125	265	2	229	17	7	19	27	-
	영일군	-	-	-	-	-	-	-	-	-	-	-
1983	포항시	315	5,198.51	50	154.09	16	275	19	1	13	28	12
	영일군	1,496	16,544.71	571	568.28	500	1,315	56	37	48	77	34
1986	포항시	882	11,659.86	39	131.85	7	305	90	9	13	32	25
	영일군	1,409	13,353.36	448	453.52	609	-	-	-	-	-	-
1989	포항시	373	15,696.91	66	162.36	91	254	33	9	12	32	29
	영일군	1,473	11,514.48	369	435.62	703	-	14	18	41	45	27
1990	포항시	363	14,607.75	37	158.13	92	233	39	7	9	31	25
	영일군	1,416	11,429.49	362	427.26	-	-	-	-	-	-	-
1991	포항시	369	15,550.29	65	158.13	95	225	46	6	8	30	27
	영일군	1,416	11,856.75	362	427.26	-	-	18	20	36	44	26
1992	포항시	377	15,236.81	65	157.44	97	222	50	9	7	30	27
	영일군	1,350	11,052.72	396	446.80	730	876	29	11	30	47	23
1993	포항시	363	14,239.47	67	158.89	96	221	49	10	8	25	20
	영일군	1,336	11,257.19	330	353.54	707	816	23	14	27	49	25
1995	포항시	1,750	25,721.45	258	506.43	633	204	66	44	40	76	42
1996	포항시	1,754	21,999.25	132	147.69	568	1,100	57	47	43	*69	44
1997	포항시	1,981	2,141,076	193	171.85	735	1,085	51	45	42	71	41
2000	포항시	1,987	2,014,100	156	16,200	631	1,300	46	32	37	59	38
2002	포항시	1,964	1,868,968	149	15,326	561	335	43	35	60	59	20
2005	포항시	1,991	1,811,623	20	1,052	502	1,315	30	29	54	63	18
2007	포항시	1,762	1,745,100	32	2,400	1,101	1,234	32	27	54	64	16

제5절 수산업협동조합·독도수산센터

1. 수산업협동조합의 현황

(단위 : 명, kg, 백만원)

연별 및 조합별	조합수	조합원수	직원 수			주요협동사업실적				
			계	남	여	판매	구매	가공	공제	기타
1998	3	4,603	219	161	58	73,576	10,090	694	6,635	698
2000	4	4,670	207	157	50	97,571	16,011	624	10,032	628
2002	4	4,556	181	146	35	99,613	15,819	646	7,086	1326
2004	4	4,499	168	138	30	124,531	24,607	386	6,229	953
2006	4	4,469	174	138	36	110,262	24,167	1,055	7,682	67
2007	4	4,297	169	134	35	111,452	23,634	1,405	8,213	834

연별 및 조합별	연중용자실적			연말현재예금잔고		
	계	금융자금	재정자금	계	저축성예금	요구불예금
1998	53,279	35,017	18,262	91,930	84,693	7,237
2000	103,157	68,301	34,856	197,451	187,658	9,793
2002	100,819	69,791	31,028	188,263	179,176	9,087
2004	121,868	81,674	40,194	187,050	177,590	9,460
2006	49,914	27,543	22,371	229,103	213,500	15,603
2007	142,765	127,379	15,386	227,035	215,768	11,267

수산업협동조합은 수산업에 종사하는 어민지도와 사업자금융통을 위해서 어민을 대상으로 자립 자위적인 경제단체로 태동 되었다. 그 현황을 보면 포항지역에는 포항수산업협동조합, 영일수산업협동조합, 동해구기선저인망 수산업협동조합, 경북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이 있다.

먼저 2007년에 조합원수 4,297명, 직원 수 16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협동사업실적은 판매 11,452백만원, 구매 23,634백만원이며 연중 유치실적은 142,765백만원, 연말현재예금 잔고는 227,035백 원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1998년에 조합원수는 4,603명, 직원 수는 219이었는데 해가 갈수록 조합원수, 직원 수가 줄어지고 있어 이 지역에 수산업의 퇴조를 나타내고 있다.

1) 포항수산업협동조합

포항 수협은 1914년 영일군 포항면에 영일어업조합이 설립되었는데, 당시 한국인 490명, 일본인 39명을 합하여 529명으로 구성 되어 출발을 하게 되었다.

1962년 1월 20일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되어 4월 1일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설립되어 어민을 위한 자립·자위적인 경제단체로 발족을 보게 되었다.

현재의 포항수협은 1912년 12월 8일 영일어업조합으로 일찍이 출발하여 어민을 위한 수산단체로서 수산계 발전에 많이 기여하였으며, 1962년 4월 1일 포항어업협동조합으로 명칭이 개명되었다. 그 후 1971년 3월 16일부터 신용업무를 시작함으로써 어민들의 수산자금 조달이 편의를 제공하고 어민을 위한 수협으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포항수협은 신용업무를 보게 됨으로써 금융기관으로서 영세어민을 위하여 자금공급에 활력소를 넣어 각종 어업시설의 현대화에 기여를 하게 되었다.

1973년 2월 28일에는 포항어업무선국을 설치·운영하게 되었으며, 동년 10월 16일 수협중앙회로부터 시범 수협으로 선정되어 모범적인 조합으로 사업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1974년 12월 30일에는 죽도예금취급소를 개설하여 죽도시장 내 어시장 형성은 물론 수산자금의 활성화에 일조가 되게 하였다.

1977년 4월 1일에 현재의 포항수산업협동조합으로 명칭이 개칭되었으며 1980년 3월 11일에는 신용업무를 신흥동 698-9번지 신축건물에 이전을 하였다. 이 시기에 포항수협의 임무를 보면 협동조합의 촉진과 수산업의 생산력 증강 및 어민소득증대, 어민지도 및 공동이익 증진에 역점을 두고 있다.

기능면을 보면 지도사업, 신용사업, 구매사업, 상호금융사업, 정부위촉사업, 판매보관사업, 공제사업 등 어민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사업에 임하고 있다.

1987년에 포항수협은 법인 어촌계 1개 비법인 어촌계 22개로 구성되어 있었다. 당시 법인어촌계가 1개로서 나머지 비법인화로 수협사업이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1998년에 이르러 조합원수 1,996명, 직원수 1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촌계는 29개이며 조합원을 구성할 수 없는 시내소재 회원들의 연락업무를 위해 관리소 3개를 두고 있다. 그런데 종래에 있던 법인은 없어지고 어촌계 29개 모두가 비법인으로 되어 있어 향후 법인화 추진이 관심과제이다.

2) 영일수산업협동조합

영일수협은 대보어업조합(大浦漁業組合)으로 출발하여 1925년 5월 구평리, 하정리, 장길리를 합하여 9개 부락으로 확장하고 1946년 5월 대보지역의 어민들의 요청에 의하여 대보조합을 설립하였다. 그 후 강사 1구부터 대동배 1구까지 관할구역을 넓혔으

나, 1961년 6월에 수산단체의 정비통합으로 구룡포어업조합으로 통합되어 대보에는 출장소로 남게 되었다. 1963년 4월 1일 구룡포어업협동조합으로 개칭되어 발족과 동시에 대보지소가 설치 운영되었다. 수산협동조합은 1949년 1월 30일 정부출범을 계기로 한국수산업회로 변경되었으며, 여러 가지 진통을 겪으면서 5.16군사혁명 이후 통합정비가 1961년에 이루어지면서 탄생되었다. 수산업협동조합은 어촌의 구심적 협동체로서 어업생산력의 발전을 통하여 어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동시에 어촌경제를 번영시키고, 나아가서 국민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까지 기여한다는 임무를 띠면서 발족한 것이다. 그런데 양포조합은 1925년에 출발하여 많은 실적을 나타내다 어획량 부족으로 인한 경영부실로 그 영세성을 면치 못하였는데, 구매사업에 있어 1,362천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아 1968년 청와대 수협경영진단 및 1972년도 정비작업을 통하여 조합이 통폐합 되었다. 그 후 양포, 대보, 구룡포조합이 통합되어 영일군 수산협동조합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다. 수산협동조합은 전술한 바의 목적을 달성키 위하여 어민지도사업, 구매사업, 상호금융사업, 정부위촉사업, 판매보관사업, 공제사업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조직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영일군수산조합의 가장 기본 되는 조직은 어촌계이다. 어촌계는 각 지구별 조합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어촌의 자연부락을 단위로 조직된 어촌의 민주적 소조직이다.

어촌자연부락은 어업 전 어장이 그의 존립기반이 되고 있으며, 지역어민들은 이 어장을 생활의 터전으로 삼고 있다. 지구별 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연안어업권을 어민의 자치조직에 넘겼을 때 그 이용과 개발에 대한 의욕은 가일층 팽배하여 나갈 것이며, 부가적으로 부락내의 거주민을 위한 다른 경제사업도 공동으로 수행해 나갈 수 있다.

수협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정 지구 내에 있는 어민들의 지구별 조합설립을 허가함과 동시에, 필요한 어촌에 지구별 조합으로 하여금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영일군 수산협동조합도 계의 조직범위를 연간 12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거나 경영하는 어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어촌자연부락 단위로 조직되어 있다. 영일군수협관내에는 2,451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8개 어촌계 조직을 가지고 있다. 28개 어촌계 중 장기 법인 어촌계는 법인이며 27개 어촌계는 비법인 어촌계이다.

1998년 말 영일수협은 직원이 86명이며 주요사업으로 구매사업, 판매사업, 이용사업, 가공사업, 공제사업 등의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어민들과 조합원들은 신 한일어업협정 체결로 어민들이 출어를 해도 현존의 바다상황으로는 어획량을 올릴 수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룡포수협은 1999년 6월 1일 러시아정부 업무대행사인 '소니코'입어협약체결을 하여 러시아 경제수역에서 어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산업계는 비상한 관심이 되고 있다.

3) 동해기선저인망수협

기선저인망 어업은 전형적인 자본집약적 어업으로 어선, 어망, 장비, 경영규모 등에 있어 가장 발달된 대규모어업에 속한다. 주로 연안에서 풍력, 조력, 인력에 의하여 예인 조업하던 범선저인망 어업인 타퇴망 어업을 어선의 동력과 대형화와 어구 어법을 개량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동해기선 저인망 수산협동조합은 1930년 10월 27일 기선저인망어업 수산조합으로 설립되었으며 1935년 2월 13일에는 조선 3구 기선저인망 수산조합으로 출발하였다. 1962년 1월 20일에 와서는 협동조합 형태로 조직이 개편되기도 하였다. 1970년 6월 11일 개정된 수산자원 보호령에 따라 대형선 저인망어업 및 중형기선 저인망의 조업 금지구역이 규제되기도 하였다. 1973년 4월 13일에는 동해구 기선저인망 어업협동조합으로 설립을 하였다. 그 후 1977년 4월 21일에는 동해구 기선 저인망수산협동조합으로 개칭했다.

한편 새우트롤어업은 제2차 대전 후 세계적으로 냉동새우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새우자원의 조사와 효과적인 어업의 도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1956년 ICA 수산기술 원조 75,000 \$에 의해 도입된 시범어업용 물자 중에 포함되어 새우 트롤어구가 1957년 8월 중앙수산시험장에 인도되었다. 민간업자로 1957년 11월 20일 남성해우(주)대표 김한수가 제1남세호에 의한 위탁시험약정을 중앙수산시험장과 체결하여 한국 새우트롤어업의 창시자가 되었다. 한국 새우트롤어업수산협회는 1962년 12월 15일 창립해서 다음해에 새우트롤어업협동조합으로 1977년 4월 1일에는 동해구 트롤수산협동조합으로 개칭되었다. 동해구 기선저인망 수산협동조합은 1981년 3월 4일 동해구 트롤수산협동조합을 흡수 합병하여 1985년 10월 12일 포항시 항구동에서 현재 신흥동으로 청사를 이전하여 1986년부터 상호금융 업무를 시작했으며 1993년 2월 17일에는 중앙지소를 개설하여 금융업무를 보고 있다. 1998년 현재 본 조합은 조합원 84명 직원 25명으로 구매사업, 판매사업 등 고유의 협동조합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143억9천 여 만원의 예금 잔고가 있다.

2. 독도수산센터

일찍이 (1923년 5월) 포항지역에 경북수산시험장이 설치되어 어종보호 및 개발에 관심을 갖게 되어 수산업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1949년 11월에는 중앙수산시험장 포항출장소, 1963년 12월 국립수산진흥원 동해지

구 시험소, 1971년 8월 국립수산진흥원 포항지원 등 명칭을 거치는 동안 동해일대 및 근해수산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1985년 5월 국립수산진흥원 포항수산연구소로 개편됨으로 하여 종래 어민지도를 제외한, 한국근해어황변화조사, 연근해환경조사, 연근해 어자원 동태조사, 어장조사 및 어황 예측에 대한 연구를 통해 어황정보를 알려 주는 업무에 주력을 하고 있다. 특히 인공어초 효과시험, 종묘배양분양을 통한 어황의 형성과 전복우렁쉥이 등 종묘를 유상·무상으로 판매하여 기르는 어업, 보호하는 어업으로 전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1993년 2월 10일 개정된 수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규정에 의해 3월 2일 동해안 수산연구를 해오던 주문진 수산연구소와 포항수산연구소는 동해 수산 연구소에 통합함에 따라 그 기능이 폐지되고 모든 활동을 중지하는 방향으로 결정 났다. 포항 수산연구소는 그간의 실적과 어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분소규모로 존치하기로 하였으며 기존 포항종묘배양도 그대로 두기로 하였다.

그 후 2002년 3월에 국립수산과학원 동해수산연구소 심해수산 자원연구센터로 신설 되었다. 2007년 1월에는 심해수산자원연구센터로 신설되었으며 2009년 4월에는 독도지역어자원 보호 및 일본과의 영토 분쟁으로 독도수산센터로 개편되었다. 부지 9,580㎡, 건물 3,230㎡, 시험조사선 12호 70톤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포항시 북구 두호동 616번지에 소재하고 있다.

제6절 염업

염업의 역사는 오래 되었지만 고려왕조 충선왕이 즉위하면서 도염원이라는 것을 설치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것을 미루어보아 그전에도 소금이 있었지만 문헌상의 염업으로는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제염업인 것이다.

염업은 대체로 생산 방법이 단순하여 조선왕조에 와서 해안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었으며 포항지방에는 1936년 해도동, 죽도동 일대에 천일제염으로 소금밭이 형성되어 발달되기 시작했다.

해방 후 포항지역의 염전은 8만평(27ha)이었으며 염전을 하면서 생업에 종사한 사람은 20여 가구에 2,000명에 달하였다. 당시 1회 생산량은 200~300가마 정도였다고 추정된다.

1960년 통계를 보면 제염면적 70,286평에 제염 장소는 18개, 종업원 수가 54명에 달하였다. 생산량의 대부분은 포항지역이나 인근 지역에서 소비되었다.

1960년대 초부터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하여 포항종합제철의 기공식을 기점으로 한 인구증가와 도시 확장으로 인한 염전지역의 구획정리사업으로 완전히 사라졌다.

참고문헌

- 한국수산연구회, 《한국수산사》, 1968.
영일군, 《영일군통계연보》, 1976~1991.
수산청, 《수산통계연보》, 1979~1986.
포항시, 《포항시사》, 포항시, 1987.
영일군사편찬위원회, 《영일군사》, 1990.
한영광, <경북일보 칼럼>, 2005.